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제3차 교학 정기회의



회의 일시

2025. 08. 18.(월) 14:00~15:30 / 15:30~17:00
2025. 08. 29.(금) 15:00~16:00

회의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참여자

제57대 총학생회 S:CATCH 학사정책국, 총학생회장단,
학생성공센터, 교무팀

논의 안건 1. 교내 장학금 확대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 차장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총학생회: 제1차 교학 정기회의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 2학기 초 장학 잔여 예산을 확인하고 성적우수장학금 확대 및 2학기 장학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시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음.

학교 본부: 학생성공장학금, 창의장학금, 학생리더장학금, SKKU-BA-DIVE, 외국인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학기 장학 예산을 배분해본 결과, 1학기과 동일한 수준으로 문행장학금을 지급할 시, 성적우수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임. 올해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2유형 수령이 불가해졌으므로, 무리하게 성적우수장학금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문행장학금을 1학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1학기과 동일하게

- 소득분위 1~5분위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전액 보전이 가능하도록 문행장학금 지급
- 소득분위 6~8분위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일부 보전이 가능하도록 문행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기를 바람.

총학생회: 등록금 인상이 있었던 첫 해인 만큼,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불가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이에 학교 측의 입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2025-2학기의 경우 잔여예산이 없는 만큼, 성적우수장학금 확대보다는 학교 측이 제시한 문행장학금 지급 방식에 동의함.

다만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당시부터 등록금 인상이 모든 학우에게 적용되는 만큼, 모두가 수혜받을 수 있는 성적우수장학금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음. 2026학년도에는 학교 측에서도 장학 예산의 추가 편성 등을 검토하여 성적우수장학금 확대가 이루어지길 바람.

학교 본부: 이전에 총학생회 측에서 학과·학부별 장학금 지급 방식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어, 이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장학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음. 대표적으로 학과·학부별 지급 조건 등이 달라 성적장학금 중복 수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함. 일부 학과·학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성적우수장학금뿐 아니라 일반 성적우수장학금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음. 이로 인해 본교는 원칙적으로 등록금의 100%를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과·학부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성적우수장학금(70%)과 성적우수장학금(30%)을 합쳐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는 사례가 있었음. 이전에 총학생회 측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개선해나가면 좋을 것 같음.

총학생회: 당장의 성적우수장학금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학금 지급이 공정하게 집행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정당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해당 내용들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추가적으로, 기존 비교과챌린지장학금 수혜 내역을 확인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비교과챌린지장학금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적이며, 공지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다른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장학금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실질적으로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기준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많더라도, 장학금 수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비교과챌린지장학금을 마일리지 제도로 변형하는 방안을 제안함. 프로그램 특성과 참여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장학금으로 환산하여 학우들이 참여한 만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함.

학교 본부: 총학생회에서 제안한 마일리지 제도 방식은 더 많은 학우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장학금 수혜를 보다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동의함. 다만,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성공센터에서 주관하는 만큼, 프로그램별 마일리지 책정 및 세부 운영 방식 등은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필요가 있음.

결론

- ① 2025-2학기의 경우, 2025-1학기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 소득분위 1~5분위 학우들의 경우, 등록금 전액 보전이 가능하도록 문행장학금 지급
 - 소득분위 6~8분위 학우들의 경우, 등록금 일부 보전이 가능하도록 문행장학금 지급

- ② 학과·학부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

- ③ 비교과챌린지장학금 개편안은 학생성공센터와의 논의 후 시행 여부를 검토

논의 안건 2. 챌린지스퀘어 페이지 정비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 차장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학생성공센터

총학생회: 제2차 교학 정기회의에서 ‘총학생회 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여름방학 중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바와 같이, 제3차 교학 정기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함. 이에 이번 회의 자리에서 이를 논의하고자 함..

기존 대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는 약간 간소화하는 것에 찬성함. 메인 페이지의 디지털 배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대분류 간소화를 진행할 경우 다른 부분보다는 디지털 배지를 제외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특히 다수의 학우들로부터 디지털 배지의 기능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디지털 배지 관리’ 탭에 해당 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신설되면 좋을 것 같음. 아울러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에 디지털 배지가 부여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음.

학교 본부: 현재는 디지털 배지 부여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함. ‘최소 10시간 이상의 활동 등에게만 디지털 배지를 부여한다’ 등의 규정이 있으며, 교환학생, 국토대장정 등의 프로그램에도 디지털 배지를 부여하고 있음.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 취득 현황을 대시보드 형식으로 메인 페이지에 배치했으나, 아직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디지털 배지를 메인 페이지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한 뒤 활성화가 된 시점에서 다시 추가할지, 혹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할지 고민해보겠음.

추가적으로 제2차 교학 정기회의 당시 총학생회 측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을 테이블·카드·리스트·달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해보았음. 학생들이 원하는 형식을 선택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메인 페이지의 비교과 프로그램도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아보임.

총학생회: 또한, 학생성공센터에서 학생성공가이드 노선을 통해 챌린지스퀘어 및 비교과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는 노선 바로가기가 팝업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주목성이 다소 떨어짐. 따라서 메인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버튼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현재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신청 시 상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떤 항목이 추가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았음. 그 결과 운영 부서, 수강 기간, 3품 인증 여부 등이 추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3품 인증 여부는 졸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역량이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융합, 글로벌, 시민의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분류명만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보다 직관적인 분류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현재의 구분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마련된 것인지 여쭙고 싶음.

학교 본부: 다섯 가지 역량은 성균관대학교 대학혁신과공유센터에서 구분한 것으로 본교의 성공 역량에 따라 설정된 것임. 비교과 프로그램 주관 부서와 학생성공센터에서 각 프로그램별 역량이 올바르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업로드함.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역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는 메인 역량과 추가 역량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또한 현재 챌린지스퀘어에 역량, 운영 부서, 수강 기간, 3품 인증 등을 체크하여 상세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총학생회: 학우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해당 역량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이 외에도 챌린지스퀘어 모바일 이용 시의 불편함, 해외 융합 프로젝트와 같이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는 프로그램 관련 의견도 제기되었음.

학교 본부: 모바일 서비스 경우 PC 버전과 별도로 개발되어야 하므로, PC 버전 완성 후 이에 맞추어 모바일도 수정할 예정임. 글로벌 경험 및 새로운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 작성은 학생성공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팀과 각 부서에서 논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임. 역량에 대한 설명은 비교과 가이드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챌린지스퀘어에 비교과 가이드 연결 URL을 잘 보이는

곳에 추가할 예정임.

결론: 해당 의견들을 반영하여 학교 측에서 챌린지스퀘어 페이지 수정안을 최종 완성한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논의 안건 3. 본교 성적평가제도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교무팀

총학생회: 제1차 교학 정기회의를 통해 학교 측에서 재수강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성적평가 비율 변경 혹은 재수강 횟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한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우들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 이에 따라 7월 중 ‘성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함.

우선 본교의 성적평가 제도가 타교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음.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평가 비율 변경과 재수강 총 횟수 제한 중 후자가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또한 성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 의견을 취합해보았을 때 ‘취득학점포기제’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

‘취득학점포기제’의 경우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과는 다르게 유불리한 집단이 생기지 않음. 또한 최근 타교에서 해당 제도를 다시 도입하거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취득학점포기제’와 관련하여 학교 측의 입장 및 의견을 들어보고 싶음.

학교 본부: 제1차 교학 정기회의 당시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과 관련해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득학점포기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뿐 아니라 전체적인 성적평가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두 함께 살펴보아야 함. 교무팀 측에서 2025-1학기 성적평가 방법이 어떠한지 학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학사 과정 기준 절대평가 수업의 비율이 54%였으며, 처음으로 50%를 넘겼음. 이전까지는 절대평가 수업 확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음.

또한 성적평가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경우, 도입 결과가 몇 년이 지난 후 성적 통계로 나오다 보니 예상치 못한 성적 인플레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추이를 보아야 함. 하

지만 많은 학생들이 ‘취득학점포기제’를 원하고, 타교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학교 측에 충분히 전달하겠음.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당 제도가 당장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생각함.

총학생회: ‘취득학점포기제’가 성적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 우려되어 학교 측에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해서라도 제한적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주길 바람. 현재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대체 교과목을 지정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목들에 한해 대체 수강이 아닌 학점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취득학점포기제를 우선 운영하는 것도 건의드리고 싶음.

학교 본부: 말씀해주시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취득학점포기제가 학생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완전히 도입이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라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임.

총학생회: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취득학점포기제를 운영하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점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학교 측이 우려하는 부분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우들의 큰 수요와 타교 학사제도의 변화하는 추세를 보았을 때 취득학점포기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음.

학교 본부: 성적과 관련한 제도를 개편하려면 접근부터 쉽지 않음. 학생들과 학교 측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에 절충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함. 많은 이해관계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고,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겠음.

총학생회: 타교에서도 학점 포기가 불가능한 필수 교과목이 있고, 그 외 제약을 두며 취득학점포기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절충안을 찾아 취득학점포기제를 도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함. 최대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과목들을 규정하고, 포기 가능한 최대 학점을 제한해두면 좋을 것 같음.

학교 본부: 학점 포기 후 해당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없도록 하면 성적 인플레이션 등의 부담은 적을 수 있음. 이러한 내용도 한 번 전달해보겠음. 담당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려고 노력하겠음.

총학생회: 취득학점포기제의 도입이 당장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총학생회 측에서도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도입을 이뤄내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취득학점포기제 관련하여 학생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번 교학 정기회의를 통해 요청을 드린 것이고, 1차적으로 내부에서 검토 후 회신주시면 좋을 것 같음.

총학생회: 취득학점포기제 외로 설문조사 응답 내용 중 성적평가 과정에서 성적이 지나치게 늦게 업로드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시험 및 과제 점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불편 사항이 있었음.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음.

학교 본부: 학교 측에서는 교수진에게 성적 공시 기간 전 성적 입력 마감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만약 입력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문 단위에 이를 전달하여 학장 및 학과장이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수진에 성적 처리 안내문을 보낼 때에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적평가 방식을 공개하고, 추후 이의신청 답변 시 세부 점수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달함. 혹여나 성적평가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이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안내함.

다만 과목의 성격에 따라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부 성적을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 교수진이 학생에게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한 학기에 개설되는 수업이 4천 개 이상이다 보니, 학교 측에서 모든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의신청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학교 측에 알려주기를 바램. 학생들이 알려주면 학교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교수진에 직접 연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총학생회: 추가적으로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 비전공 T/O 수강신청과 관련한 의견이 접수되었음. 비전공 T/O의 경우 전공 T/O와 달리 학년 구분이 없다 보니, 수강신청이 빠른 저학년이 대부분의 T/O를 선점하여 고학년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년 구분이 없는 비전공 T/O 수강신청의 경우 모든 학

년이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하는 T/O 통합 이후 진행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임. 해당 내용 고려해 주기를 바랍.

결론: ‘성균관대학교 전 학부생 대상 성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 결과 보고서를 교무팀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취득학점포기제’와 관련해 교무팀 내부 검토 예정.